14-1 // 민중의 삶과 죽음> 1977 // 자본주의 발달. 그와 같은 대중사회를 모티브로 해서 주제로 해서 미국에서 팝아트가 일어날 때 역시 유럽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또한 그와 유사한 대중 소비 사회를 반영하는 그와 같은 미술 운동이 일어나게 됨. 🡪신구상 회화

아로요 <로빈슨 쿠르소> 1966 // 무인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누구한테 보여 줄 필요도 없고, 세상을 반영 할 필요도 x. 그냥 자기가 좋아서 그리는 것. 세상은 자본주의 발달로 인해 빈부격차로 .. 사회주의 운동 많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19c 사실주의 이후부터 지금까지 배워왔던 미술이라는 것이 모더니즘이라는 하에 자기 좋아서 미술을위한 미술 미술의 특권층을 위한 미술을 해왔다. 마치 화가들은 무인도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현실과 아무런 상관없이 동떨어져 그림을 그려왔다. --> 여기에 대한 반성이 프랑스의 신구상주의

45) 뒤샹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 1913

46) 뒤샹 <독신자에게 발가벗겨진 처녀> 1915-23

뒤샹의 역할 – 그림을 완전히 그리지 않아도 그림이 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됨. 현대미술을 현실과 동떨어지게 만들었다. 화가가 그리지 않아도 작품이 됨. 이와 같은 변기가 우리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예술지상주의(예술가가 지목만하면 예술이 됨)

뒤샹의 작품을 옆에다 놓고, 뒤샹이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 취조실에 뒤샹이 앉아있고 취조. 왜 니가 그 따위 짓을 했느냐. 변기 하나 놓고 작품이라 했느냐.. 현실에서 미술가들이 완전히 떨어져나가버리고 자신만의 울타리 만들어버렸다.. 뒤샹이 두들겨 맞고 결국 계단에서 떨어져 죽음. 뒤샹의 장례식을 프랑스식으로 근엄하게 해주는 장면.

뒤샹을 죽인 것 – 세상을,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참여하겠다.

예술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1964년에 <일상의 신화>라는 전시 열리게 됨. 일상을 해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르주아가 원하는 미적 도덕적 놀이의 단절을 선언. 막시즘을 지향(but 공산주의는 아님). 결국 창조의 자유를 추앙해서 미술을 위한 미술,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하는 것은 예술가를 무인도에 고립시키는 것 뿐이다. 민중을 위해서 투쟁해야 하고, 미술의 특권적 위상을 버린다. 민중을 위해서 투쟁해야 하고 브루주아가 원하는 미적 도덕적 놀이의 단절을 선언한다. 모더니즘 미술의 형식주의를 반대한다. 일상의 여러가지 이야기 내용에 관심을 갖는다. 창조의 자유를 추앙하는 것은 예술가를 고립시키는 것 뿐이다. 부르주아가 원하는 미적 도덕적 놀이의 단절을 선언. 미술은 민중을 위한 투쟁에 봉사해야 한다.==>당연히 정치성 가짐. 당시 프랑스는 굉장히 혼란(빈부격차, 사회적 약자 문제 등..). 결국 6.8 혁명 일어나게 됨. 대학생이 시위 중 죽음. 전국적으로 확산. 지금의 제도로 완전히 바뀌게 됨. 등록금 제로. 결국 명문학교 중심. 직업, 연봉 등에서 차이나게 됨. 그러나 불만 없음. (명문대 간 것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지역에 따라 다르게 봄.

미국 – 자본주의 발달. 긍정적으로 바라봄. 풍요로움 주제로 해서 미술 하고자 함.

신구상회화 작가들은 이 풍요로움에 대해 질문을 던짐. 세상이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아로요 <안젤 가니베의 자살> 1977 // 안젤 가니베 – 민주운동하다가 쫓겨다니다 죽은 사람. 민주주의와 약자들의 편에서 작품을 하는 미술 운동(1960년대 ~70년대까지 지속)

미국에서는 소비사회 옹호. 실용주의적 태도 / 유럽 특히 프랑스 – 물질 문명에 대한 불안감 확산. 대중소비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똑 같은 자본주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미국 유럽이 각 각 다르다.

48) 제라르 프로망제, <프랑소와 토피노-레브룬에 대한 예찬 : 민중의 삶과 죽음>, 1977 //

웨셀만 <위대한 미국의 누드> 1963과 비교. 미국의 대중은 통속적 에로티시즘 추구.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임. 익명. 시간과 공간 고전.

프로망제 것도 익명. 사람들이 여러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일상속에서 수많은 현실이 숨어있다. 시간과 공간이 연속이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속 됨.

1977년 <토피노-르브렁에 대한 경의> 전시회

47) 제라르 프로망제(Gerard Fromanger, 1939-) <프랑소와 토피노-레브룬에 대한 예찬 : 단두대의 회화> 1977 / 안토니오 레칼카티(Antonio Recalcati, 1938-), <토피노-레브룬 예찬 : 단두대의 회화> 1974 // 토피노-르브렁 : 나폴레옹 1세를 암살하려는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공화주의자.

49) 안토니오 레칼카티(Antonio Recalcati, 1938-), <토피노-레브룬 예찬 : 단두대의 회화> 1974 //

이야기가 있는 그림. 더 이상 모더니즘적인, 형식주의(미술을 위한 미술). 그 형식을 알만한 지적인 능력있는 사람(부르주아적인..) 그와 같은 것을 거부한다. 민중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좋아하는 작품 그림. 프랑스 사람은 토피노-르브렁을 안다. 왕실을 없애려했던 사람. 단두대의 칼날이 벽에 있고, 무기력해보임. 오른쪽에 프랑스 국기가 찢어진 모습. 우리가 보면 어떤 불만이라기보다, 그동안 해왔던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작품이 처형이 되었다. 개인의 무력감, 목이 짤리우는데도 권태롭게 앉아있는 민중의 개인의 무력감 드러냄.

이와 같이 이런 것을 새로운 역사화다라고 얘기함.

50) 벤자민 웨스트(Benjamin West, 1738-1820) <울프장군의 죽음> 1770년경 // 전형적인 역사화. 영웅이 주인공.

But 신구상주의는 민중이 주인공이 되는 역사화가 되었다. 팝아트는 대중문화의 특징을 주제로 했고, 역사화가 될 수 없다. 신구상주의는 민중의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려 했다. 민중의 승리, 처참한 상황 등.. 삶의 불안 고독 등을 표현..

51) 제라르 프로망제 <현존>(질문 연작) 1976 // 기자들.. 그런데도 절대로 답을 안함. 은폐. 그와 같은 정치적 상황.

52) 제라르 프로망제 <Le Kiosque> 1973 // 이 사람 작품의 특징 – 항상 민중을 익명으로 표현. 정치노선(사회주의자). 그와 같이 본질적으로 은유적이라는 점에서 전통회화 구상회화와 구별. 추상에 밀려났던 구상의 복귀처럼 보이지만, 은유적이라는 점에서 전통구상회화와 거리가 멀다. 환상적이고 그로테스크한 면 가짐. 굉장히 격렬하게 이 세계를 가리키며 비난하는 특징.

처음부터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감. 부르주아에 대한 거부감에서 출발함..

53) 앙리 카르티에-브레송(Henri Cartier Bresson, 1908-2004) 1932 // 이 구멍 안으로 세상을 바라봄. 굉장히 감시..

54) 앤디 워홀 <전설> 1981 / 베르나르 랑시약(Bernard Rancillac, 1931-), <성스러운 어머니 마리 암소> 1966 // 공통적으로 잡지나 상표에서 보여주는 그런 도상을 사용. 이 브랜드 치즈 프랑스에서 대중적..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치즈. 대중사회에서 보이는 도상 이와 같은 것을 사용하는 공통점. 이런 도상의 사용은 미국 팝아트의 영향 받음.

앤디워홀 : 실크스크린으로 미디어에 나오는 것을 전설로서 보여줌. 굉장히 대중문화에서 소재와 주제를 가지고 와서 대중문화 그 자체를 보여줌.

베르나르 랑시약 : 기아로 굶주려가는 아프리카의 상황. 대중은 수입이 있던 없던 풍요로움. 세계의 한 구석에는 기아로 굶주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환기. 때로는 이 세계를 가르키면서 격렬한 비난함.

56) 베르나르 랑시약 <피의 만화(칠레)> 1977 // 칠리에서 일어난 군사 쿠데타 은유적으로 보여줌. 대중 문화 이름 하에 대중은 무관심하게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재밌게 살지만, 여러가지 정치적 사건속에서 용납되선 안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랑시약 왈, ‘붓보다는 총이 더 효과적인 것 사실이다. 그렇지만 총을 쏠 수 없으니까 불가항력의 힘으로 그림을 그릴 뿐이다.’

굉장히 정치성 가지고 있다가 극 사실주의에 합류. 정치성이 흐려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흘러가게 된다.

1960년대 유행했던 팝아트, 신구상회화의 공통점은 구상의 복귀!!!!!! 구상은 복귀가되었지만 팝아트 같은 경우는 보고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 잡지 등에서 보여지는 도상을 가지고 와서 실크스크린 등의 대량생산의 체제까지 가지고 와서 작업.

신구상회화는 화가가 직접 그림을 그리기는 하지만, 이 것이 단순하게 사물을 재현하고자 하는것이 아니라 은유를 통해서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

**하이퍼 리얼리즘(극사실주의)**

1) 현대미술, 사실성의 대두 – 사실주의 / 인상주의 / 후기인상주의 / 야수주의 ………..

2) 추상의 탄생과 전개 – 1910~20년대 추상

- 제 2차 대전 이후의 추상 : 추상표현주의/앵포르멜

3) 미술과 대중문화 – 팝아트의 등장과 발전

**4) 미술과 카메라 – 하이퍼리얼리즘(극사실주의)란?**

하이퍼리얼리즘(극사실주의)

1) 척 클로즈 (Chuck Close, 1940-) <냍 Net>(나타니엘의 애칭) 1972 //

나는 너의 거울이 될거야. 거울에 비친 것 같이 똑같다. 거울의 상은 원본과 같은 것은 아니다. 반사는 복제니까..

7) 찰스 벨(Charles Bell, 1935-1995) <검볼 No.10 슈거 대디> 1975 //

**사진을 사용**. 팝아트 같은 경우는 사진, 잡지 등에서 나온 사진 이미지 사용. 또한 연결되는 것 : **대중 소비사회와 산업 시대를 상징하는 주제를 의미한다.** 현실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건 미국 국기구나. 이건 검볼이구나.. 🡪**사물의 즉자성** (보자마자 바로 파악 할 수 있는 것..?) . 또한 **동일한 모티브를 반복적으로 사용**. 그리고 **시점이 다양**. **건조한 무감정**.(어떠한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중립적**이다. **익명성**. ((하이퍼리얼리즘과 팝아트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

사진같음. 추상적으로 느껴짐. 포토리얼리즘🡪사진을 이용해서 그린다. 실제 사물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여러 장 이용해서 그림(시점 다양). 하이퍼리얼리즘(정말 사실적이다. 극 사실주의). 사진을 보고 그리거나 프로젝트 이용해서 슬라이드 필름 이용해 그림.

사진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특징. 사진을 그대로 배끼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가 포착한 시점, 캔버스와의 관계, 또한 예술가 본인의 예술적 감각 결합.

인상주의 작가들도 사진 이용. 인상주의와 사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스냅 사진의 구도에 관심. 또한 카메라가 등장하니까 인간의 눈으로 무엇을 그릴 것인가에 대해, 무엇을 그릴 것인가에 대해 관심. 그래서 사진이 너무 정교하게 잘 그려주니.. 인간의 눈으로서 바라보는 것을 그리려 하니까 광선, 반사광.. 시시각각 변하는 그 순간 포착하려 함.

인간의 눈 4)모네 <풀밭위의 점심식사> 1865-1866 / 모네 <정원에서의 사람들> 1854

인상주의의 이와 같은 특징은 바로크 미술가 5) 벨라스케스(Diego Velazquez, 1599-1660) <시녀들> 1656 // 부터 시작. 이 그림 멀리서 보면 진짜 같이 그림.가까이서 보면 붓터치 거침. 멀리 있으면 멀리 있는 대로,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그리는 것이 사실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있는 그대로 그림. 멀리서 보았을 때를 계산하는 것.. 하나하나 자세하지 않아도 우리의 선입관에 의해서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적인가? 아니면

8) 찰스 벨 <검볼 No.10 슈거 대디> 1975// 이렇게 정교하게 그리는 것이 사실적인가 대해 의문

누가 돋보기 대고 그림 보는가? 오히려 추상적이지 않을까. 포토리얼리즘이란 단어 더 선호..

팝아트가 추상의 계보 이어감. 하이퍼리얼리즘도 추상을 잊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6) 리처드 에스테스 <The Canadian club> 1974 // 하이퍼리얼리즘은 주제가 (산업시대,대중문화..즉) 도시 .. 그와 같은 장면 포착. ‘사진은 스케치 같은 것이다.’

자기가 가본 장소만 그림.

9)로버트 코팅엄(Robert Cottingham, 1935-) <Roxy> 2004 // 간판에 앞의 건물이 비춰진 것. 사진같다. (사진 같을 수 밖에 사진 보고 그리니). 구성적인 측면에서 재현하고자 하는 의지+사진의 특징+예술가의 예술적 감각🡺모더니즘 적인 계보를 따른다.

사진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사진가가 아니다. 사진은 출발점으로서 데생으로 사용한다.’

사진 – 밑그림, 구성, 배색 등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게 됨. 🡪아이디어에 도움 줌

리얼리즘의 완성은 인간의 몫. 예술가가 완성하는 것.

9) 돈 에디(Don\_Eddy, 1944-) <Silver Shoes> 1974 // 좀 추상적이다. 실제로 구두가게. 반짝거림.. 쇼윈도에서 보는 것.. 앞부분에 있는 상점이 뒤에 반사되는 것. 실제로 이렇게까지 반사되지 않음.. 좀 낯설어 보임. 특히 이 그림 보면 앞에 있는 상점이 반사되고, 구두가 있으면서 .. 원근법이 흔들리게 됨. 그래서 사진을 보고 그렸기 때문에 사진 자체가 평면. 평면에 원근법이 적용되어 착각.. 사진과 같은, 평면에 어떤 환영이 있는 것 같은 착각. 그러니까 사진과 유사한…. 르네상스식이 아닌 사진을 보면서 그림. 평면을 보면서 그림.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면이다. 굉장히 아닌 듯 하지만 기본적으로 평면. 그와 같은 것에서 아주 사진과의 관계가 깊고, 그래서 좀 추상적이다!!

구상회화의 복귀처럼 보이지만 재현에 대한 의지. 재현의 행위를 보아 구상으로의 복귀임에는 틀림 없다. But 사진을 보고 그리기 때문 형식과 구성 등에서 모더니즘 미술을 수용하고 있다.